

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79호

7월 26일

2025년

토요일

牧羊新聞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제74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개최

‘성경에 대한 개념’ 성경대로여야

2025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연합수련회 개최…각종 회무처리



엄하석 목사
예하성 총회장
주성교회

본 교단(총회장 엄하석 목사) 제74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가 지난 7월 17일(목) 오후 1시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열려 최근 진행 중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앞으로 진행될 일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실행위원회에 앞서 드러진 예배는 교단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경기 지방회장 김중연 목사의 기도,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용목 목사는 계 20:1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성경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신앙은 완전히 몰락하고 만다. 성경은 절대무오하신 하나님 말씀이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개념이 확고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성경에 대한 개념이 성경대로여야 한다. 이것이 아니면 모두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 성경관이 확고부동해야 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이 같은 확고부동한 성경관을 지켜나가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끝까지 한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회원 모두를 축복했다.

이어 총회장 엄하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2부 회의는 총회장 엄하석 목사 주재로 총무 오세준 목사의 회원 점명 후 총



회장 엄하석 목사의 개회선언, 전회의록 낭독, 총무 보고가 이어졌다.

총무 오세준 목사는 총무보고를 통해 74차 정기총회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라는 주제로 은혜 가운데 열려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해외선교사 목사안수, 사모연합회 정기총회, 74차 총회장 엄하석 목사 선출, 제74차 총회 제1회 고시위원회 모임 고시 일정 수립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재무 최정식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백영자 목사의 지출보고가 있었으며 결의 및 안건 토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회전출입 청원, 교역자전출입 청원, 교역자복귀 청원, 교역자사임 청원, 교회폐쇄 청원, 교역자소전 보고, 전도국과 농어촌국 국장

변경 건(전도국장 정환무 목사, 농어촌국장 성기찬 목사) 등의 내용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기타사항으로 7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부루나이 레디슨호텔에서 열리는 세계하나님의성회 아시아 태평양지역 총회장 및 선교리더회의에 본 교단 국제총회장 심용재 목사가 참석하여 활발한 선교 선교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어 7월 22일(화)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 동부전선 육군 제2 신숙대응사단에 총회장 엄하석 목사를 비롯 중진 목회자들이 위문하기로 했으며 또한 교단교육국(국장 조순남 목사) 주관으로 오는 7월 27일(주일)부터 29일(화)까지 2박 3일간 대립멜넌교회(당회장 정부용 목사) 평창수양관에서 열리는 2025년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연합수련회에 중고등부 학생과 청년 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각종 감염병환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하고 차별금지법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도록,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허사가 되고 압도적인 한·미 동맹의 군사력으로 중단 되도록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 등을 위해 기도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려는 이들의 계획 또한 저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힘을 더해 줄 것을 당부하고 합심하여 기도했다.

교단 제74차 총회 제2회 임원회

중·고 청년들 무더위에도 수련회로 모여 기도에 힘쓴다

세계AG 아태지역 총회장 및 선교리더 회의 국제총회장 심용재 목사 참석

교단 총회(총회장 엄하석 목사) 제74차 총회 제2회 임원회가 지난 7월 17일(목) 오전 11시 은혜와진리교회 회의실에서 열려 각종 보고 후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임원회는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가 배석한 가운데 총회장 엄하석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의 기도 후 총무 오세준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엄하석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 오세준 목사의 총무보고, 재무 최정식 목사의 재무보고, 회계 백영자 목사의 회계보고 사항으로 이어졌다.

총무 오세준 목사는 제74차 총회 제1회 고시위원회 모임 고시일정 수립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재무 최정식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백영자 목사의 지출보고가 있었으며 결의 및 안건 토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회전출입 청원, 교역자전출입 청원, 교역자복귀 청원, 교역자사임 청원, 교회폐쇄 청원, 교역자소전 보고



고, 전도국장에 정환무 목사, 농어촌국장에 성기찬 목사로 임명변경 건 등의 내용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기타사항으로 7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부루나이 레디슨호텔에서 열리는 세계하나님의성회

아시아 태평양지역 총회장 및 선교리더회의에 본 교단 국제총회장 심용재 목사가 참석하여 활발한 선교 선교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어 7월 22일(화)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 동부전선 육군 제2 신숙대응사단에 총회장 엄하석 목사를 비롯 중진 목회자들이 위문하기로 했으며 또한 교단교육국(국장 조순남 목사) 주관으로 오는 7월 27일(주일)부터 29일(화)까지 2박 3일간 대립멜넌교회(당회장 정부용 목사) 평창수양관에서 열리는 2025년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연합수련회에 중고등부 학생과 청년 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각종 감염병환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하고 차별금지법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도록,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허사가 되고 압도적인 한·미 동맹의 군사력으로 중단 되도록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 등을 위해 기도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려는 이들의 계획 또한 저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힘을 더해 줄 것을 당부하고 합심하여 기도했다.



‘이러한 기도(1)’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 14:13,14)



조용목 목사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고 요구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의심하면서 구하는 기도, 탐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금지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최선의 응답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적절한 조치를 행합니다. (마 7:7~11)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절한 조치를 행하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에 관하여 많은 사례와 본보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자 즉시 하나님께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그 성안에 의인 오십 명이 있는 데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은 사십 명, 삼십 명, 이십 명, 열 명으로 숫자를 줄여서 계속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인 열 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 받았습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천사 둘을 소돔성에 보내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소돔성에서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의지하여 기도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도와 의향을 여러 번 바꾸실 정도를 에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는, 야곱의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분노한 형의 낫을 피해 도피 길에 오른 야곱은 들에서 돌을 베고 잠들었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자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창 28:20~22) 빛난 아람으로 간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간 더부살이하는 동안 인색하고 간교한 외삼촌 라반이 거듭 고용계약을 위반하였

으나, 야곱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믿어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구한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며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승리의 삶을 살 아갈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 14:13,14) 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셋째는, 모세의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 아래 당도하여 머무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산 아래의 백성들은 타락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모세에게 알리신 다음 그들을 진멸하실 계획을 발표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벌을 면제해 달라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중재기도를 하였습다. (출 32:10~13)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언약을 내세우며 호소하였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태도와 의향을 바꾸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탄력을 얻게 하여 줍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교훈이 된 요점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를 본받아 기도하므로 다양한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기장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 6차 세미나 및 기도회

기장 교단 내 목사 341명, 장로 866명 등이 뜻을 함께 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장로회 소속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현 목사)가 지난 7월 13일(일) 오후 2시 오산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주용대 목사)에서 동성애·동성혼 반대 제6차 세미나 및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경기도에 소재한 많은 기장 소속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했다.

1부 예배에서는 주용대 목사 사회로 성양권 목사(부천 사랑의교회 원로)의 기도, 위원장 김창현 목사(서울 강서교회)의 인사말 등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예장 합신 동성애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성

한 목사(안양 은혜교회)가 “퀴어신학은 신성 모독이며 이단이다”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이어 3부 기도회에서는 위원회 총무 박성화 목사(제주 성산중앙교회) 인도로 △기장 총회의 바른 정체성을 위해 △교단에서 퀴어신학 퇴출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를 위해 △8월 25~26일 전국 선교대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이날 세미나는 기장 경기중부노회 증경 노회장 차창현 목사(부곡교회 원로)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오는 8월 25~26일 안성 사랑의교회 수양관에서 교단 내 퀴어신학 퇴출 등을 위해 열리는 기장 전국 선교대회에 적극 참석을 결의했다.



임원들은 감염병이 각 나라별로 발생보고가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총회원들에게 당부하기로 했으며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예곡으로 영혼을 수령으로 빠뜨리는 사이 비집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새정부들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북한의 무력도발 중단과 핵무장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에 힘이 생기기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미군과 ‘한미동맹’의 지대한 역할을 결코 잊어서 안 될 것을 강조했다.

한기총, WEA 반대 2차 대책포럼 연다

총신대 문병호 조직신학교수 발제 강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이하 한기총)는 7월 11일(금) 오전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36-3차 임원회를 열고 'WEA 반대 2차 대책포럼' 계획을 결의했다. 포럼은 오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그레이스홀에서 개최하며,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문병호 교수(조직신학)가 발제한다.

이날 임원회에는 지난 4월 가진 WEA 대책 포럼과 짐바브웨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제한 굿윌 샤나(Goodwill Shana, WEA 의장)의 신학적 정체성 규명 기자회견 내용이 보고됐다.

기자회견에서는 샤나 의장의 신사도운동 의혹과 종교 다원주의·포용주의 신학을 지적했으며, 복음주의 입장에서 이단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고경환 대표회장은 “굿윌 샤나는 명예박사 학위 외의 정규 신학교육 이수 경력이 없



는 상태에서 WEA를 사실상 대표하는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운영비 후원 건과 관련하여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한기총을 위해 내어놓은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정확하게 보고하며 투명하게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기총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8.15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장소 선

정 등 이와 관련된 준비는 대표회장에게 일임했다.

아울러 상반기 활동 내역을 보고했다. 4월에는 고경환 대표회장, 김정환 사무총장, 이외현 비서실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을 방문해 아픔을 나누고 성금을 지원했으며, 총 4차에 걸쳐 성금을 전달했다.

법원, 코로나 ‘대면 예배’ 목사에 무죄 판결

종교의 자유 헌법상 최고가치와 거리두기 실시 등 인정

코로나 유행 때 내렸던 집합 제한 조치를 어기고 대면예배를 드려 고발됐던 예수사랑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1심판결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고양시 예수사랑교회 조덕래 목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집합제한조치는 어졌지만 종교의자유가 헌법상 최고가치라는 점, 예배 참석인원을 최대한 제한하고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덕래 목사는 지난 2020.9.13. 10시 20분 경 예수사랑교회에서 27명 신도와 예배드리

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고양시에 의해 고발당해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산불 진화 희생자 유가족 위한 위로금 전달

애타미-사랑의열매, 3월 기부금 100억 중 47억 우선 배분

지난 3월,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사랑의열매에 재난·재해 중 단일 기업 기준 최대 규모의 성금 100억 원을 기부한 애타미(회장 박한길)의 기부금이 본격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

병준)는 영남 지역 산불 진화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입은 공무원, 산불진화대원, 헬기조종사를 대상으로 총 47억 원 규모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위로지원금은 지난 3월, 애타미 주식회사가 사랑의열매에 기부한 100억 원 중

일부로 마련됐다. 지원금은 유가족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희생자 1인당 5억 원, 중상자에게는 치료비 및 재활 지원을 위해 2억 원, 경상자에게는 치료비 명목으로 2천만 원씩 각각 지급된다.

지원금 전달식은 산불 진화작업 중 사망자와 중상자 등 인명 피해가 있었던 경남 창원군 경화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피해 유가족과 박한길 애타미 회장, 애타미 회원 자조단체인 애스오애스 나눔회,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위로의 뜻을 전했다.

유가족에게는 희생자들의 헌신에 대한 존경과 애도의 뜻을 담아 감사패도 함께 전달됐다. 전달 대상자 중에는 창원군 산림녹지과 소속으로 산불 진화작업에 투입됐다가 안타깝게 숨진 30대 공무원도 포함됐다.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호 활동

구세군 한국군국·전국재해구호협회 업무협약 체결

구세군 한국군국(사령관 김병윤)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사무총장 신훈)와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호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국내 재난 구호 시스템 강화에 힘을 모았다.

구세군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7월3일, 서울 구세군 100주년 기념빌딩에서 김병윤 구세군 사령관과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및 재해 구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공식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재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양 기관이 뜻을 모은 결과다. 양 측은 △긴급구호 현장 활동 및 운영 △재해 구호 지원, 장비 지원 및 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구호물자 관리 및 효율적 배분 △공동 브랜드 홍보 활동 등 5개 분야에

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구세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적인 조직망과 오랜 기간 축적된 자원봉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 구호활동 및 물류 관리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내 유일의 법적 재난 구호 전문기관으로서 현장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월드비전, 아동 정신건강 위한 포럼 개최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천효과 공유...효과적인 가족지원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지난 7월 14일(월) 광주 서구 감대중진 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아동 정신건강의 이해와 효과적인 가족지원 모델 제안' 호남권역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부모자녀 관계향상의 중요성과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실천 효과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가족 중심 개입 모델을 지역사회에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월드비전과 광주북구를 전진숙 의원,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포럼은 전진숙 의원을 대신해 참석한 이세민 보좌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순이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장의 인사말과 김성안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장 겸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겸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박정수 전라남도정신재활시설협회장의 축사 순으로 이

어졌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이주연 전남대학교대학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부모자녀 관계향상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이해'를 주제로 부모의 역할과 양육 유형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경험의 아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월드비전과 서울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아이존과 공동으로 3년간 개발 및 운영한 '부모자녀 관계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함의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애착, 정서 표현, 의사소통 코칭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를 개선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비전은 이 프로그램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형 공모사업 형태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도 ‘제17회 한국장로교의 날’ 행사 열려

성경, 찬송, 교회, 주일학교, 기독교학교 등 주제로 설교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권순웅 목사)가 주최한 2025년도 '제17회 한국장로교의 날' 행사가 지난 7월 6일(주일) 주다산교회에서 “살롬 부흥!”(요 20:21)을 주제로 26개 교단이 연합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특별히 이번 한국장로교의 날 예배에서는 성경, 찬송, 교회, 주일학교, 기독교학교, 사회봉사, 해외선교, 비전 등 8가지 주제를 가지고 8개 교단 총회장들이 직접 참석해 메시지를 전해 연합의 의미를 더했다.

대표회장 권순웅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한국장로교회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형제와 자매로서, 장로교회가 더욱 하나 돼 힘을 모아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국론분열, 저출생, 고령화, 기후환경, 경기침체, 고실업



율, 외교안보 등 시급한 당면과제들을 안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오늘날 관계의 단절, 소통의 부재, 갈등의 심화는 모두 죄성 때문으로서 하나님

과의 삶들이 필요한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림을 이룰 수 있다”면서 “26개 교단이 함께 하는 한장총이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섬기며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서공회, 탄자니아에 성경 기증

성서공회, 탄자니아에 성경 기증...선한 영향력 기대

대한성서공회(이사장 이선근 목사)는 지난 7월 8일(화) 개포동교회(이봉인 목사)의 후원으로 탄자니아에 ‘스와힐리어 성경’ 5,643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다.

개포동교회는 금년, 부활절을 기념하며 온 성도가 성경 후원을 위해 헌금하였으며,

작년 6월 르완다에 ‘킨야르완다어 성경’ 5,000부를 후원한 이후 두 번째로 해외 성경 보내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개포동교회 이봉인 목사는 “이 성경이 한 분 한 분에게 전달되어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자녀 되

게 하셨던 것처럼 탄자니아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성경을 통해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소망했다. 탄자니아성서공회 알프레드 키몽게 총무는 영성 인사를 통해 “이곳, 탄자니아에는 성경을 갖고 싶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신 성경은 탄자니아성서공회와 탄자니아 영혼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공회 호재민 총무는 “이 성경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전달이 되어서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성경을 통해 나타날 선한 영향력을 기대했다.



경건의 능력은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7월 14일(월) 오전 11시 순복음세움교회에서 7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한마음 한 뜻 되어 한 목소리로 기도한 후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월례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살롬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황연선 목사(순복음복있는교회)의 대표기도, 옥경숙 목사(순복음물대동산교회)의 성경봉독, 전임회장 정영진 목사(순복음갈릴리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딤후 3:1-5 말씀을 본문으로 '경건의 모양, 능력'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경건의 능력은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이며 경건의 삶,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저 바른 신심을 갖는 것만이 아니다. 바르고 진실된 삶, 바르고 진실된 인격을 갖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신앙은 믿는 마음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도 함께 하는 것이다. 세상을 타하고, 환경 타하고,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나의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실천하는 삶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한 후 강광수 목사(순복음아바교회)의 헌금기도, 김갈렐 전도사의 봉헌특송, 사회자의 광

고, 부산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어진 월례회는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의 인도로 각종 회무를 처리한 후 순복음세움교회에서 제공한 핫집으로 자리를 옮겨 물회와 회비발납, 생선구이 등으로 맛난 식사와 교제를 한 후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를 서로 격려하고 9월 월례회 때 만났기로 하고 각자 목양지로 돌아갔다.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 7월 14일(월) 오전 11시,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선한빛교회(담임 이태우 목사)에서 제74차 2025년 7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유용근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태우 목사(선한빛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녹동순복음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백 목사는 출 15:22-27 말씀을 본문으로 '마라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삶의 광야 같은 시기마다 시험하시고, 치유하시며, 축복을 예비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시험을 통해 겸손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고, 치유로써 아픔을 회복시키시며, 마라의 쓴 물 이후 엘림의 샘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선포하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했다. 이어진 합심기도 시간에는 정책위원장과 총회, 교단 임원과 산하 지방회, 각 지교회와 목회자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며 함께 기도했고, 전임회장 최경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했다.

2부 회의는 최남성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어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 주재하에 회월 점명 및 총무·서기·회계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정기 모임 일정을 논의하고 결의하는 등 회무를 원활하게 처리했다. 김갑신 목사

의 폐회기도로 모든 회무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이후 참석자들은 선한빛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애찬과 다과를 나누며 짧지만 따뜻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며, 서로의 사역을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 됨을 다짐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전라지방회는 앞으로도 말씀과 기도, 교제 속에서 교회와 목회자들의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지방회로서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 나갈 예정이다.

예수사랑교회 성전이전감사예배, 새로운 출발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김종연 목사)는 지난 7월 12일(토) 오전 11시 예수사랑교회(담임 권재연 목사)에서 성전이전감사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사역의 출발을 함께 축복했다.

이번 감사예배는 이준구 목사(PDTS 간사/새빛교회)의 찬양 인도로 경건하게 시작되었으며, 지방회 총무 전하세 목사의 사회, 재무 이동을 목사의 대표기도, 서기 윤진철 목사의 성경봉독, 예수전도단 PDTS 간사들의 은혜로운 특송이 이어졌고, 지방회장 김종연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이사야 43:16-21 말씀을 본문으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목회에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이 임한다"고 강조했



다. 또한 '권재연 목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김형중 목사(열방새순교회)의 권면, 김홍광 목사(전임회장/주내순복음교회)와 고석형 목사(PDTS 교장/그사랑교회)의 축사가 더해져 교회 이전을 축하하고 새로운 사역을 응원했다. 회계 김경순 목사의 헌금기도, 조영숙 목사와 임태형 집사(PDTS 간

사/제자들교회)의 헌금 특송도 예배의 은혜를 더했다. 마지막으로 담임 권재연 목사의 인사와, 교단 총회장 엄하석 목사(주성교회)의 축도로 감사예배가 마무리되었다.

예배 후에는 예수사랑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로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참석자들은 새로운 예배당에서 펼쳐질 사역의 비전과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격려를 나누었다.

“다시 우리의 사명을 찾자”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김윤배 목사)는 지난 7월 14일(월) 오전 11시, 진리와사랑교회(담임 김진호 목사)에서 7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최은성 목사(승리하는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근설 목사(생명수교회)의 기도, 전임회장 김진호 목사의 설교, 전임회장 윤경현 목사(보은순복음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김진호 목사는 창 5:21-24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우리의 사명을 찾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예수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본문을 인용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고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들도 초심을 회복해 하나님의 말씀



을 전하고 가르치는 삶에 충실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설교 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통성기도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2부 월례회의는 지방회장 김윤배 목사(중앙샘교회)의 사회로 각 부서 보고가 유인물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지방회 모임 시 드러지는 예배 헌금은 장소를 제공

한 교회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결의되었다. 또한 교역자들의 단합과 체력 유지를 위한 체육부 모임을 매달 한 차례씩 갖기로 하였고, 교단과 지방회, 개교회의 부흥을 위한 합심기도 후 회장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배와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교제의 시간으로 함께 점심식사와 다과를 나누며 친목을 도모했다.

“사랑의 종이 됩시다”

경기남서지방회

경기남서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7월 14일(월) 다메섹교회(담임 이원정 목사)에서 7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나라를 위해 교단과 지방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회원간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찬양 인도에 이어, 이원정 목사의 사회, 성경봉독에 이광우 목사(지방회 총무), 대표기도에 임경영 목사(지방회 부회장)가 순서를 맡았으며,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요 19:38-42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의 종이 됩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로 보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받아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수



님의 장례를 위해 한남된 무덤과 몰약, 침향을 언급하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며 순종임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사랑을 변화시키는 사역에 힘쓰자"며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기도와 찬양,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자"고 권면했다.

이어진 중보기도는 표현자 목사(지방회

회계)가 인도하며 나라와 민족, 교단과 지방회, 개교회와 교역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미경 목사의 헌금기도, 김기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회의는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의 주재로 진행되어 각종 안건을 논의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다메섹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점심 식사를 함께하고 교제를 나누는 뒤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남수 목사)는 지난 7월 15일(화) 밝은빛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7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말씀과 교제,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눴다.

이날 1부 예배는 고성록 목사의 찬양인도에 이어 지방회 총무 김진태 목사의 사회, 오승희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사모 중창단의 은혜로운 특송에 이어 서성영 목사(순복음복된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서 목사는 고전 12:30-31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많은 이들이 목회를 지식과 경험으로 시작하지만, 참된 목회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전하고 자신 역시 아버지의 목회적 유산을 이어받으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과정을 나누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



에 힘쓸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전하며 성령충만을 강조했다.

설교 후에는 지방회장 김남수 목사의 인도로 우행지 전도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총무 김진태 목사의 인도로 나라와 교단, 지방회 그리고 건강이 불편한 목회자들을 위한 합심기도 시간이 이어졌다. 정상효 전도사의 헌금기도와 서성영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월례회는 김남수 회장의 인도로 안건들을 처리했으며, 밝은빛교회가 정성껏 준비한 점심식사와 함께 교제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는 오승희 목사가 독일에서 직접 준비한 미용제품과, 우행지 전도사가 가져온 열대과일과 떡 등 다양한 선물도 나누어져 참석자들에게 기쁨을 더했다. 또한 김효신 목사의 섬김으로 인근 카페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후,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제13차 전국사모회 실행위원회 개최



손선희 사모
예하성 전국사모회 회장

전국사모회 단합대회 준비 관련 의견 교환

예하성 전국사모회(회장 손선희 사모)는 지난 7월 17일(목) 오후 12시 30분 은혜의진리교회 안양성전 3층 세미나실에서 제13차 전국사모회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국사모회 단합대회 준비를 논의하는 등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손선희 사모회

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수석부회장 황인경 사모의 기도, 서기 김재희 사모의 성경봉독, 직전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사 55:8-9 말씀을 본문으로 '고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람의 생각과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라고 하시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섬기라

고 하시며, 부자가 되려면 먼저 남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먼저 우리의 생각부터 하게 된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내 생각과 사상을 철저히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고통당하지 않고 신앙의 삶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회계 나명숙 사모의 헌금기도, 총무 김세희 사모의 광고, 김영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곧바로 이어진 회의는 회장 손선희 사모 주재로 서기 김재희 사모의 회월점명 후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전국사모회 단합대회 준비를 위해 세부적인 준비사항을 나누어 전달하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목양시론

진전한 성교육 전문가를 공격하는 언론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매뉴얼제작 TF회의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성교육을 진행할 때, 변경해야 할 용어 목록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포괄적 성교육'과 '섹슈얼리티'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포괄적 성교육은 동성애를 포함시키는 것이고, 섹슈얼리티는 주기 성애화(性愛化)를 조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현재 사용하는 용어를 다른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을 결의하였다. 즉 연애를 이성 교제로, 포궁(胞宮)을 자궁으로, 체험관을 센터교육장으로,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서울시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 매뉴얼을 위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관계자 4명,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공무원 2명, 기존 자문위원 2명, 신규 자문위원 2명 등 총 11명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 자문 위원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성교육 강사로 활동 중이며, 처음 이 회의에 참석한 조우경 대표(글로벌바른가치연구소)가 최근 국내 및 해외에서는

란이 되는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과 국가교육위원회의 방침대로, 섹슈얼리티 등의 단어가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용어들이 수정·보완되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소위 말하는 진보 좌파 언론 매체인 한겨레, 여성신문, 프레시안, 민중의 소리, 오마이뉴스 등의 언론들이 반발하는 기사를 썼고, 여기에 더하여 조우경 대표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그가 발언한 것도 왜곡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 대표는 7월 8일 한국교회언론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첫째, 언론들이 조 대표의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안 것이며, 그의 발언을 왜곡시켜 전달받은 경로를 무엇인가를 밝혀라. 둘째, 자신을 리박스쿨과 연계시켜 명예를 실추시킨 것을 해명하라. 셋째, 이 언론들은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포괄적 성교육'만이 올바른 성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는 언론들이 생명과 가정의 가치를 올바로 전하는 성교육을 기독교의 극우 세력에 의한 잘못된 방식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넷

째, 조 대표가 교회나 선교회 등에서 강의한 내용을 일반 학교 공교육 현장에서 강의하여, 종교적 편향을 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좌파 진보 매체들이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그동안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외설적이고 부적절한 성교육으로 인해 수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민원과 항의를 받았고, 한 명이 23년간 대표의 지위를 가졌으며, 동성애가 정당하다는 주장으로 인하여, 서울시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위탁이 불투명해지는 상황 속에서 건전한 성교육 기관을 모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왜곡된 것의 정정보도와 함께, 조 대표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였다. 조 대표는 부연(敷衍)으로, 자신은 특정 정치인을 당 대표로 출마하라는 것에 동의한 바 없고, 유럽에서도 외면받는 '포괄적 성교육'의 현실을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포괄적 성교육에 찬성하는 나라는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의 5개국 정도이며, 강력하게 이를 반대하는 나라들은 12개국이다. 또 반대하는 입장의 나라들은 8개국으로,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아일랜드, 마케도니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등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유럽에서조차 반대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성교육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이기에, 건강하고 올바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을 정치적, 혹은 왜곡된 개념으로 가르치는 것을 옹호하고, 건전하고 바른 성교육을 하는 강사를 집중적으로 언론들이 공격하는 것은 결코 바르지 못하다. 이런 상황들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성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 그리고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은 교육하는 사람들의 막중한 책임이다. 그러므로 '성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바른 양심과 교육자에 요구되는 합당한 양심이 뒤따라야 한다.

청소년들에 대한 바른 '성교육'은 소위 말하는 밈과 밈 싸움이 아니라, 인격체를 가졌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청소년 세대가 온전한 인격체로 완성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언론들도 이념적 다름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져 갈 다음 세대를 위한 무거운 채무 의무 의식을 가져야 한다.

치식 제공했다.

유니믹스는 곡물과 콩류, 식물성 기름,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된 혼합식으로, 영양실조 치료를 위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이다.



케냐 가뭄 피해 아동과 여성에 영양식 긴급 지원

밀알복지재단, 고영양식 지원, 94% 영양 개선돼

밀알복지재단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케냐 마사빗주에서 5세 미만 아동과 임신부, 모유 수유 중인 여성 등 100명을 대상으로 영양식을 긴급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케냐 마사빗주 통합 가뭄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후 변화로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유목민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밀알복지재단이 영양식을 긴급지원하는 마사빗주는 케냐에서 가장 심각한 식량·식수 위기 지역으로 꼽힌다. 마사빗주는 전체 인구의 81%가 유목에 의존하는데, 최근 5년간 지속된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가축의 90%가 폐사하고 옥수수 등의 식량 가격이 최대 90% 이상 급등한 상태다.

IPC(통합식량위기관류)에 따르면 10명 중 3.5명은 영양실조 위기 이상으로 예측되며, 이는 케냐 전역 1.7명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집계된다. 물 사정도 열악해, 주민 절반 이상이 정수되지 않은 염분이 많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밀알복지재단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아동 78명과 여성 22명 등 총 100명을 대상으로 고영양 혼합식 '유니믹스(UNIMIX)'를 1개월

살롱나비 / 제77주년 제헌절 보내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국민, 지성인,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한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된 국경일로, 올해로 제77주년을 맞게 된다. 헌법 공포일을 7월 17일로 정한 이유는 과거와의 연속성을 고려해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전체 왕정국가에서 민주공화국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더불어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이자 국가의 존재 이유를 명시하는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며, 국민 주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 등 헌법의 핵심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다. 이러한 헌법제정은 일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구성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창설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헌법은 곧 국가 공동체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안정되고 질서있게 세워지기 위한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에 살롱나비는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로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가치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공동체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핵심 가치로서, 헌법제정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선대들이 피와 땀으로 정취한 역사적 산물이자,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토대이다.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선진국 반열에 올

라실 수 있었던 것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을 건국한 선조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틀을 세웠기 때문이고, 6.25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의 위협을 극복했기 때문이며, 그리고 4.19 혁명,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을 통해 수많은 선대들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계승을 위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가치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그에 기반한 자유시장경제 체제 곧 사유재산권의 보장, 예측 가능한 법치 시스템, 그리고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는 사회공산경제와 전체주의 체제인 수령 유일 복합과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구별하는 분기점이 된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정학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과 연대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대양세력과 북한 중국 러시아와 연대한 사회공산전체주의 진영의 대륙세력이 마주하고 대립하는 양진영의 대결점에 있다.

2. 이재명 새 정부는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 확고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설 것인지, 사회공산전체주의 진영에 설 것인지는 현재와 미래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한미일 연대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친중중북 공산사회전체주의 세력의 심각한 대결의 장이 되어 국민적 분열과 국가적 혼란을 겪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으며 앞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될지 불투명한 비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소위 레거시(기존) 언론들(legacy media)과 정치인들은 이러한 위기에 대하여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 또한 이러한 위기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 대한민국

의 유지 계승을 위하여 심히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후대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

3. 22대 국회는 거대 의석 여당이 일방적으로 입법하고 결정하여 협치 의회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다.

사건적으로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정치사상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행사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로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며, 법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국가이다. 민주주의가 비록 다수결이 지배적인 형태이지만, 소수자가 다수의 횡포에 의해 억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는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를 두고 있으며, 일당독재가 아닌 다당제의 바탕 위에서 다수결에 의한 결의를 할 때에도 반드시 다수당이 소수당을 억압하지 않도록 다양성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통해 실질적 심의와 더불어 절차적 정당성 또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관행을 지켜왔다. 국회 내 여러 위원회의 장을 정할 때도 다수당과 소수당, 또는 여당과 야당이 협의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해 온 것이 대표적이다. 만약 국회의 의결과정이 이런 공평하고 정의로운 절차를 따라 이뤄지지 않고 다수당의 횡포에 의해 지배된다면 이는 참된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한편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진실한 보도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이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게 된다.

4. 정치보스 중심의 팬덤정치는 입법부, 사법부를 장악하여 전체주의로 이끄

어 가고 있다.

오늘 한국의 팬덤(fandom)정치는 보스화된 정치지도자의 일극체제 하에서 외형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형식은 유지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의회의 정당한 과정을 무력화시키고, 사법부를 장악하며, 언론을 통제하고, 비판 세력을 탄압하며, 행정명령과 법 그리고 선거제도 변경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행정부의 권력을 확대하고 견제 장치를 약화시키고 나라를 실제적으로는 전체주의로 하여금 이를 인식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를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일부로 위장함으로써 시민들의 저항을 무디게 한다. 국회의 존중과 타협이 실종된 막무가내식 다수결 결의와 언론의 바른 기능 상실 그리고 팬덤정치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참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 제헌절을 맞아 우리는 팬덤정치를 극복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

5.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아직도 내부 총질에 빠져서 거대 여당의 다수결 일방총의 의회 독재에대한 투쟁을 회피함으로써 헌법정신, 삼권분립, 법치를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출현은 국민의 힘 당이 계엄 반대, 내란 프레임에 씌어서 윤 대통령 탄핵 동조, 계엄동조 이슈로 서로 내부 총질하면서 단합되지 못하며 기인한다. 국민의힘은 내부 분열로 국민을 실망시켜 22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거대 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다. 그리하여 사법 리스크에 있는 야당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정권을 잡아서 정치보복성의 3개의 특검을 가동하여 윤석열 전직 대통령까지 '내란 혐의'로 구속하여 수사하고 있다. 심지어 내란 특별법을 만들어 제

1야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하려는 거대 여당의 시도에 대하여 국민의 힘은 아무런 효과적 대응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은 자기 몸보신에 급급(汲汲)하고 야당의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까지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독재에 대하여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 한국 63 대선 부정선거의혹이 미국인 부정선거감사단에 의해서 미국 언론(6/24, 맨해타임시애크어; 6/26,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 6/30, 미국의사람)에 보도되고 미 의회 청문회에서 공식 브리핑이 추진되고 있는데 당사자인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전혀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오늘날 77회 제헌절을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다. 제헌절을 맞이하여 국민의 힘은 이제 더 이상 내부 총질만 하고 이 나라에 진정한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국회 및 정부 운영, 사법부의 법치, 국민적 의측없는 공명선거가 이행되도록 행동하는 야당이 되도록 체질 개혁이 있어야 한다.

6. 오늘날 레거시(기존) 언론(legacy media)조차도 권력에 타협하고 굴종함으로써 헌법 가치에 따르는 진정한 진실 보도를 못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소위 레거시(기존) 언론(legacy media)은 권력과 타협하거나 굴종함으로써 참된 언론으로서의 진실 보도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국민적 신뢰를 잃고 있다.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므로 정치인들 또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보다는 여왕벌을 증식한 벌떼 같은 정치 보스 중심의 팬덤정치(fandom politics)가 횡행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참된 민주주의 실현은 위로는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것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팬덤정치를 버리는 것이며, 아래로는 시민적 자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언론이 바른 기능을 다하고 국민들이 참된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질 때 가능하다.

목양시선

김송자 권사
은혜와진리교회

하나님의 도시락



난 단단한 콩 예수의 보혈

생명수에 녹여져

광야의 땃물에 부서지고 걸러

먼지처럼 작은 콩가루가 된다.

생명의 불에 부글 부글

쉽게 부서지고 성금성금

울렁 울렁 순두부

하나님 내 안에 자아를 깨트려서

생각의 간수가 빠지고

두부가 되었다.

성령의 기름에 튀겨

누님 밥상에 올려진

유부초밥 기적의 도시락

그 풍성함이 은혜로

세상을 품는다.

7. 한국교회, 시민단체, 지성인들은 헌법적 가치에서 사회를 바로 보는 시각으로 참된 의회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제헌절을 맞이하여 제헌헌법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사회공산경제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과 핵심 가치인 자유시장경제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헌법 정신을 따라 팬덤정치를 극복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오늘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두 번이나 해임시키고, 거대 의원수를 가진 정당이 임의로 자기 뜻에 반하는 관료들을 30번이나 탄핵하여 국회가 다수결이라는 정치공학으로 법을 일방적으로 만들고 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치 보복하는 한국의 정치는 선진국 위상의 국격과 K-컬처를 부끄럽게 한다. 우리 정치인들 및 관료들 가운데 전과 자들이 많은 것은 오늘날 우리 정치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구약성경의 잠언은 말한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멸절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잠 28:2).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잠 29:2).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잠 2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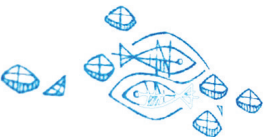
깨어 있는 국민들과 양심있는 지성인들은 헌법적 가치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불의한 길에 대하여 고발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사회는 바른 길로 들어서며 K-컬처의 나라처럼 국제사회에도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 특히 공의와 정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한국교회는 이에 책임을 느끼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목사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잠 29:18)

2025년 7월 14일
살롱을 꾸꾸는 나비행동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명예대표·논설고문,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이 땅의 아버지들



이 땅의 아버지들이 그 옛날의 영화(?)를 잃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만큼 이제는 너무도 초라해져서 옛날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다.

내 가정, 내 식구의 의식주(衣·食·住)는 내가 책임진다며 가정의 모든 짐을 한 몸에 지고 가던 장한 일들도 지난 이야기, 그래서 책임도 가벼워졌다고 스스로 위로나 해야 할지...

치열한 생존 경쟁 사회에서 치이고 후배들에게 밀리고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구세대라고 이름 붙여지고, 명퇴니 조퇴니 하여 직장을 잃어 어깨에 힘이 빠진 고개 숙인 아버지들, 모자 깊숙이 눌러쓰고 휴일도 아닌 날에 산행에 오르는 아버지들...

‘가정에서 아버지를 세워주자’는 말에 위로를 받는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기분 좋지 않은 이야기니 그만두라고 목소리 높여야 할지, 아니면 시대의 대세이니 어쩔 수 없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감사히 여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아버지들.

집안에서 옛날만 믿고 큰 소리 쳐보지만, 전처럼 영(令)이 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 편협한 아버지들의 불평이 아니라 가정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뜻있는 이들의 고민 깊은 이야기일 것이다.

한때, 김정현의 『아버지』라는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 이유를 묻고 설명해야 할지...

아버지의 권위가 실추된 세상에서는 가정의 소중함이 더 지켜질 수 있겠는가? 건강한 정신의 사람들이 배출될 수가 있겠는가? 의문부호이다.

어머니 은혜의 소중함 못지 않게 아버지의 귀중함을 일깨워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아버지들이 파이팅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솔로몬의 고백을 모든 자녀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란다.

“아들들아 아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잠 4:1-4)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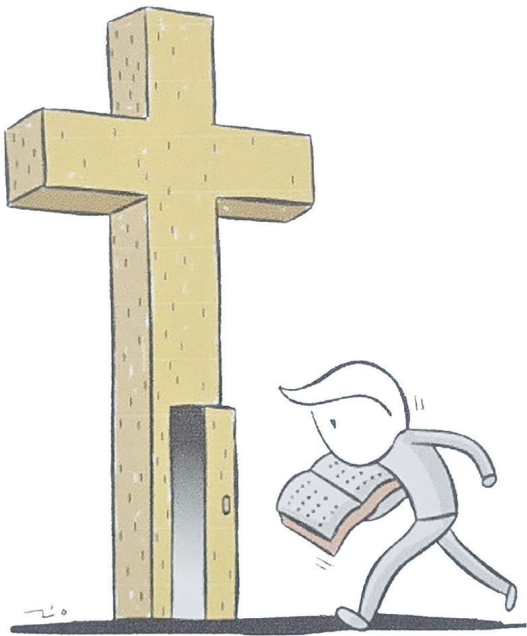
참신앙

말씀위에
보혈로 덮은 신앙
분명한 반석 신앙

감정위에
자기 의로 세운 신앙
분명한 모래 신앙

말씀위에 세운 신앙
위기 때 세워지고

감정위에 세운 신앙
위기 때 무너진다.



마음 속에 담아 놓은
깨달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다.
(눅 6:48-49)

사설

헌재의 이념 편향, 국민은 우려한다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환 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진보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이들의 지명이 확정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이념적 지형은 진보로 기울 수밖에 없고, 이는 향후 주요 헌법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이들이 임명될 경우 헌재는 진보 4인, 보수 2인, 중도 3인이란 구도로 재편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는 정정미 재판관 역시 실질적으로 진보 성향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아, 헌재가 사실상 진보 진영의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념 재편이 향후 어떤 여부가 쟁점이 될 민감한 입법 사안들에 편향된 결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임기 중 중단하는 ‘재판 중지법’, 검찰총장을 사실상 행정부에 종속시키는 ‘공소청 설치법’, 내란죄 등으로 파면된 대통령 소속 정당의 해산을 가능케 하는 정당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야당은 헌재

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9인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위헌 판결이 가능한 구조에서, 진보 일색의 재판부가 공정한 헌법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국민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김상환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성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친형 강제 입원’ 발언 관련 대법원 판결 당시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이는 대선 출마를 가로막을 뻔했던 판결의 항방을 바꾼 중대한 사안으로, 김 후보자의 헌재소장 지명이 단순한 전문성과 능력에 따른 결정이라고만 보기 어렵게 만든다.

대통령의 측근으로 평가되는 인사가 헌재소장이 된다면, 헌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에서는 김 후보자의 성 소수자 관련 판결 이력도 우려하고 있다. 그는 과거 동성 커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에서 다수의견을 낸 바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혼인과 가족제도의 법적 틀을 허무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다. 국회 절대다수, 행정부 장악에 이어 사법부까지 특정 진영의 입김이 강해진다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폭우피해 이웃 힘껏 돕자, 정부도 대비책을

태풍도 없는데,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호우로 전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전국 10곳에서는 200년 만의 ‘물폭탄’이 쏟아져 19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도 있었다.

비 피해가 심했던 곳은 한꺼번에 내리는 많은 비로 인한 것인데, 지난 17일에 내린 비만도 300~400mm가 견잡을 수 없이 쏟아져 재해에 대하여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비의 원인은 ‘기후 변화’ 때문인데, 기존의 통계나 예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존의 계절별, 강수량 통계에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서 풍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이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환경 단체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정비했는데, 이 강들의 분류에서는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류와 지천에서는 피해가 컸다고 한다.

이번에 자연재해를 당한 국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이다. 그들의 아픔을 모두 위로하기는 어렵지만, 교회가 고난당한 이웃을 돌봐주어야 한다. ‘물 폭탄’으로 물난리를 겪은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어야 한다. 정부도 재난 지역을 특별히 살펴주고, 앞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자연재해를 줄이는 방법은 자연재해보다 앞서가는 풍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도 이런 자연재해는 반복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기 바란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2025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 연합수련회

모시는글

존경하는 교단산하 목사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영혼을 위해 애쓰시며
진리를 위해 교단을 섬기시는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단 내 중소형교회 및 소규모 청년들을 사역하는

교회들이 지방회 별로 팀을 이루어 연합하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5년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 연합수련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 올림-

고문

대회장

주요 강사

청년국장

대회본부장

선교국장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엄하석 목사
교단 총회장
주성교회 담임



엄하석 목사
교단 총회장
주성교회 담임



김용준 목사
포괄적차별금지법
특별강사



문찬우 목사
교단 서기
예수온선교회 담임



오세준 목사
교단 총무·청년국장
순복음침종은교회 담임



조선남 목사
교단 전임 회계·교육국장
대림벤엘교회 담임



임형순 목사
교단 전임 서기
순복음아멘교회 담임

주제 : “마음은 새롭게, 믿음은 뜨겁게”

(롬 12:2)

- 기간 : 2025년 7월 27일(주일) ~ 7월 29일(화) 2박3일간
- 주제 :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Second Blessing!)(행 19:2)
- 장소 : 대림벤엘교회 평창수양관(강원도 평창군 마지1길 21-4)
- 대상 : 각 교회 청년부, 중고등부, 초등부 5,6학년
- 등록접수 : 2025년 7월 27일(주일) 17시부터
- 회비 : 청년, 중고등부 1인 7만원, 초등부 1인 4만원
*계좌번호 농협 302-0560-9540-41 임형순
- 문의 : 1) 대림벤엘교회 조선남 목사(010-5119-0164)
2) 포천아멘교회 임형순 목사(010-8262-4722)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육국

후원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각 지방회, 대림벤엘교회 교육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5 은혜와진리 성가합창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속에 열려

‘2025 은혜와진리 성가합창제’가 7월 5일 (토) 성가연합회 주최로 안양성전 대성전에서 많은 성가대원과 성도들이 참석하여 성대하고 은혜롭게 열렸다. 성가대원과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부르는 거룩한 노래인 찬송의 은혜와 그 감동을 함께 나누고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고 찬양의 은혜 또한 충만한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과 소속감이 더해져서 복음전도와 교회 목표를 이루는 일에 더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성가합창제는 연합회 부회장 최석중 장로의 개회선언, 회장 김영일 장로의 기도, 조명제 목사의 설교, 참가한 성가대의 찬양 발표 순서로 이어졌다.

“오늘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당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으로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거룩함의 예복을 입고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행하실 신호로써 사용하실 것입니다.”

조명제 목사는 “올바른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거룩한 찬송은 그 자체로 울

려 퍼지는 말씀의 선포와 같아서 부르는 사람은 물론이고 들음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때로는 침체된 신앙을 회복시키므로 한 사람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하 20:21-23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고 모든 성가대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다채롭고 풍성한 구원의 은총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었다. 이어서 손재익 형제와 허미리 자매의 사회로 진행된 찬양 발표에서 참가한 12개 연합성가대가 은혜롭고 감동적인 합창 찬송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며 주를 찬미했고, GNCT 챔버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선율로 협연하여 찬송을 더욱 격조 있고 은혜롭게 해주었다.

각 성가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저마다 특색 있고 아름다운 음색과 하모니로 정성껏 빛어낸 찬송의 메아리가 성전 가득 울려 퍼지는 내내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깊은 구원의 은총 속에 빠져들며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와 함께 대전·세종성전 연합성가대(지휘 연성혜, 피아노 김혜나)와 GNCT플룻앙상블(지휘 유진주, 피아노 김지혜)이 각각 특별 찬양과 특별연주로, 마지막 장로성가단(지휘



김희성, 피아노 김유정)이 축하찬양으로 성가합창제의 은혜와 감동을 더해 주었다.

모든 출연팀의 찬양이 끝난 후, 당회장 조용목 목사는 ‘감동’ ‘감격’ ‘환희’이란 세 단어로 마음에 느낀 감흥을 표현하며 성가대원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었다.

이어서 모든 성가대원과 성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희성 지휘자의 지휘와 GNCT 챔버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연주 속에 하나가 되어 성전 가득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 찬송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성가연합회장 김영일 장로의 폐회사를 끝으로 이날 행

